

언어교육과 담화표시어

양 창 용
(제주대학교)

Yang, Chang-yong. 2004. The Roles of Discourse Markers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1(1), 119-130.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in language teaching,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study of discourse. Unlike the sentence analysis, the main focus in discourse analysis goes on 'how languages are used in real situation reflecting participants' interactions. Recent study shows that grammar uses some linguistic devices to indicate interactional work. Among them is discourse markers which mainly serves as a interactional marker. Noticing that discourse markers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difficulties in language teaching, this study first looks over the main functions and roles of discourse markers from a linguistic perspective. Then some educational suggestions are made for language teaching. (Cheju National University)

1. 연구의 배경

종래 언어 연구의 주된 관심은 그 역사적 흐름(history of Linguistics)이 반영 하듯 어휘나 문법, 그리고 정확한 문장구조를 밝히려는 형식주의 (formalism)에 치우쳐 진행되어왔다. 구조주의시대의 음성-음운에 바탕을 둔 어휘 형태의 연구를 필두로 이러한 전통은 변형문법의 신화로 이어진다. 변형문법에서의 언어 연구는 문장구성 성분간의 내적 구조의 이해에 그 초점이 모아졌다. 이러한 문장 단위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형태상의 분포에 의존하면서, 무한한 문장을 생성해 낼 수 있는 형식적인 규칙체계의 수립에 전적인 관심을 쏟는다. 그 결과 규칙체계를 통한 언어 내적인 구조기술(structural descriptions)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되는 등 언어의 형식과 구조의 이해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다.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이전의 형식에 대한 연구(formalism)에 대한 제한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언어학자들은 실제로 사용되는 담화 환경에서의 언어기능에 대한 이해(functionalism)로 연구의 폭을 넓혀나갔다. 이전의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중시하면서 단편적이고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했던 언어 분석에서 언증의 실질적인 언어행위(linguistic performance)에 바탕을 둔 언어표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은 언어연구에 대한 이론 자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됨을 의미했다. 새로운 틀에서 언어기능 연구의 기본적 전제는 언어의 사용은 근본적으로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언어는 화자와 청자가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체계요,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유용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담화기능문법론에서 연구의 관심은 화자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언어적 표현들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형태의 의미해석은 담화를 둘러싼 맥락과 어떤 상관관계에서 추론되는 해석인가?에 모아졌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호작용과 문법(interaction and grammar)'은 이러한 담화기능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언어학적 연구와 접근

2.1. 상황과 맥락

종래의 언어교육은 어휘적, 구조적 정확성을 강조한 문법 중심 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2언어교육에 있어 문법과 어휘가 강조되었다. 교육 방법론에서는 문장의 형태와 구조가 그 분석의 대상이 되었고, 교실에서의 학습은 단순한 문형연습(drill)과 반복학습을 통한 정확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단순한 언어지식의 전달과 습득이 그 목표가 되곤 하였다. 그 결과는 영어에 대한 지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능력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문법 중심적인 접근이 강조됨으로써 언어의 다양한 기능(듣기, 말하기 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무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언어의 의사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교육법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과 연관지어 볼 때 담화분석은 접근은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목표어를 사용할 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들을 학습자가 스스로가 탐구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고 난 뒤, 그 영화 속에 흐르는 사회-문화적 구조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언어학습자들이 자신들이 학습에 필요한 것을 녹음한 후에 거기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들(담화표시어, 억양 등)을 살펴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담화 연구를 통한 언어교육에서는 목표어의 원활한 사용을 통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였다.

이처럼 언어연구에 있어 의사소통적인 측면과 언어의 기능과 개념을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접근은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approach)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의사소통능력이라 함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개념이 아니고, 언어의 형식적 구조를 포함하여 언어 외적인 요소, 예를 들어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의사소통능력은 문법적 지식을 비롯하여 담화, 사회 언어적,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한다(Widdowson 1979). 이와 더불어 영어권 사회 문화와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었고, 교재나 교육 방법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분석 대상언어가 문장(sentence)중심에서 담화(discourse)중심으로 변한 것이다.

부연하자면, 언어교육은 단편적인 언어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발화를 둘러싼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담화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화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의 화용정보를 Faerch와 Kasper(1984)는 '선언적 화용지식(declarative pragmatic knowledge)'이라 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은 화용지식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¹⁾. 최근에 중등교육에서 의사소통 언어교육의 강조와 이에 따르는 다양한 상황의 설정과 문화교육은 교육

1) 이들이 말하는 '선언적 화용 지식(declarative pragmatic knowledge)'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언어 지식(linguistic knowledge): 어휘, 음운, 통사 등과 관련된 지식

(b) 화행 지식(speech act knowledge): 한 언어-문화집단에서 통용되는 화행 규칙과 구성 조건에 관한 지식

(c) 담화 지식(discourse knowledge): 화행의 연쇄적, 상호 작용에 관한 지식

(d) 사회 문화 지식(socio-cultural knowledge): 언어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규범, 제도

의 질적 내용 변화와 패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재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실자료(authentic material)를 중심으로 상황이 꾸며지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대화의 촉진 및 증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다. 다각적으로 고려되는 화용지식을 바탕으로 담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촉진(interpersonal function)과 담화조직의 매끄러운 연결(textual function)을 위해 사용된다는 담화표시어의 역할, 특히 EFL환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언어연구 및 교육에 있어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²⁾.

2.2. 언어교육과 담화 표시어

앞서 간략히 언급된 것처럼 언어연구에 있어 흐름의 변화는 그 연구 내용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에는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의 언어 내적 구조의 형식적 도식관계에 논리적 설명을 더 함으로써 언어체계를 설명해 내는데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접근은 곧 이와 관련되지 않는 다른 성분들을 둘러싼 언어외적인 기능은 연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언어 연구의 흐름의 확대, 변화는 그 동안 관심의 영역밖에 있었던 실질적 언어 사용(performance-based)에 근거를 둔 언어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바뀐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언어는 인간의 내-외면적인 복잡한 정신활동(mental representation)의 결과를 응집하고, 표출되는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근본 인식의 전환과 관련되어진다. 이것은 이전의 언어 내적 연구와 대비될 수 있는 언어 외적 기능에로의 탐구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언어 외적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언어 속에 담겨있는 사회-문화적 활동(socio-cultural functions), 언어사용자들의 상호작용(interpersonal interactions), 다양한 인간 사고의 표현(aesthetic functions)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언어의 기능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가 언어사용의 해석 속에 전제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특정언어 형태나 구조 (이는 단순한 단어와 복잡한 담화를 모두 포함한다.)의 사용은 언어를 사용하는 화-청자들이 그들의 의도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언어형태와 기능(form and function)간에는 상호 긴밀한 관계가 전제된다는 것이다.

활발해진 언어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 담화표시어이다. 그 이유는 담화표시어가 말 그대로 담화 속에서 문맥 전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전이(transition)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기재로써 사용되기 때문이다. 전이적 기능이란 참여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을 위한 담화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부연할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의 관심사인 언어 교육과 관련지어 생각해보자. 전자, 즉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학습자가 주어진 상황 속에 적절한 언어 표현과 형태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것으로써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대화 참여자의 역할, 그들이 나누는 정보, 상호접촉 기능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

Celce-Murcia & Olshtain (2001)도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에 사회언어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요소의 적절한 이해와 활용은 필수적이라 하였다. 후자, 즉 전략적 능력은 학습자들이 아직 목표어에 익숙하지 못할 때 보다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 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학습자들이 필요한 언어적 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그들의 자율성의 조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Celce-Murcia & Olshtain(2001)도 원어민(native)과 비원어민(non-native) 학습자들의 실제 대화에서 의사소통 전략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언어교육이 더 이상 고립된 단위로서 하나의 어휘나 문장을 가르치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음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담화의 필수 요소인 담화표시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3. 담화 연구의 경향과 흐름

전술했듯이 담화-화용론적 접근은 기존의 '정확성'(correctness)을 규명하여 언어의 구조적 특징을 기술하는 문법성에 대한 탐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자료에 바탕을 두고 '적절함'(appropriateness) 또는 '타당성'(properness)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고 의도된다. 연구 대상언어자료 또한 기존의 분석 자료와는 좀 거리가 있다. 문장과 같은 단편적인 언어단위가 아닌,

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 대상인 담화표시어도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촉발시켰다. 또한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은 연구 대상 언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문어(written language)에 바탕을 둔 연구에서 구어(spoken language)에서 관찰되는 자연스러운 자료들이 코퍼스(corpus)로 모이게 되고, 이는 언어의 실증적 분석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자료 속에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담화표시어는 새로운 언어연구 대상으로 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곧 담화표시어가 일련의 대화(conversation) 속에서 담화의 흐름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사회적, 전략적 책략으로 사용되는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담화표시어에 대한 관심은 순수한 언어학적 연구에서 출발한다. Schiffrin(1987)은 대표적인 연구라 하겠는데, 많은 표시어(*oh, well, so, y'know, I mean* 등)에 대한 복합적인 설명력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의 주된 논점은 담화표시어가 담화의 일관성(discourse coherence)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이다. Brinton(1996)은 담화표시어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들 표시어의 변화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하고 있다. 문법화(grammaticalization) 과정을 거치면서, 담화표시어는 어떤 명제의 의미(propositional meaning) 전달에서 벗어나 보다 담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순수 담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영어 담화표시어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는 다른 언어의 담화표시어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Maynard (1992)의 일본어, Abraham (1991)의 독일어, Hansen (1998)의 프랑스어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라 하겠다. 이들은 각 언어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시어의 언어적 기능 연구와 더불어 언어습득에 관련된 측면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중언어(bilingual) 환경에서 쓰이는 담화표시어의 역할 그리고 언어사용자들의 담화표시어 사용 빈도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ashler (2000), Matras (2000)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는데, Matras (2000)는 목표 언어에 유창할수록 담화표시어 사용이 빈번함을 주장했다. 이의 사용은 담화에 표출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이해가 전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학습자의 담화조절 능력(conversation harmony)이 드러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계속해서 담화표시어의 연구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 담화(discourse)의 인식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전자는 ESL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와 원어민들에 의해 사용되는 담화표시어가 어떻게 텍스트구조의 전개와 관계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 후자는 EFL환경에서 학습자들은 대화(conversation)나 쓰기(writing)에서 담화표시어 사용을 주저하거나, 거의 무시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직면하여 그는 쓰기에서 담화표시어 사용을 독려한 결과, 학습자들은 스스로가 언어 습득에 내적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McCarthy & Carter(1994)는 교육자들이 담화표시어를 가르치는데 어려움과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One of the difficulties that language teachers face with features such as discourse markers is how does one 'teach' such features in a natural way, not only given that they are almost subconscious items for speakers, but also given that they seem to be so central to natural discourse? (p. 68)

...what we have said about discourse markers underline just how ubiquitous they are in talk and how the discourse syllabus must seek ways of tackling them. First and foremost, an understanding of their functions is important.....(p. 85)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EFL환경에서 쓰이는 담화표시어에 대한 연구와 탐색은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원어민의 모국어 환경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의미와 언어사용을 위한 전략적인 의미가 동시에 함축되어있는 담화표시어가 비원어민 환경에서 어떻게 텍스트와 학습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외국어 학습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4. EFL 환경에서 담화 표시어

위 단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담화표시어의 기본적인 특성은 구어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구조는 문어적 자료에 바탕을 둔 기존의 문법중심의 연구에서나 교육에서 담화표시어에 대한 언어학적인 이해와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문어적, 의미론적 차원에서 명제적 의미(propositional meaning)를 산출하는 데는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표현들이 최근의

적인 흐름의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또 하나의 기능을 한다. 최근 연구에서 Lee(2001)는 언어교육에서 담화표시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담화표시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a. They are more frequently found in spoken English
- b. Learners can better understand the flow of conversation they hear
- c. They facilitate the chunking of information into smaller information units, as is typical in colloquial language
- d. They provide helpful linguistic strategies, such as:
 - gaining & holding the floor
 - making smoother transitions
 - effective attitudinal & informational nuances linguistic solidarity & politeness

EFL환경에서 보다 실질적인 연구는 Yang(2004)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연구는 EFL환경에서 쓰이는 텍스트를 그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ESL과 EFL 환경에서 영어회화를 위해 제작된 교재를 선정하여 담화표시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연구는 널리 사용되고, 그 쓰임이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영어 담화표시어인 *well*, *oh*, 그리고 *okay*를 그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담화표시어의 빈도수인데, EFL환경에서 제작된 교재에서 그 빈도수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보다 통계적인 자료의 바탕이 필요하지만, 이는 영어가 공식어로 쓰이는 환경에서가 보다 자연스럽게 구어적인 담화표시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실제로 언어교육, 특히 구어중심의 회화는 보다 자연적인 연결과 말하는 이의 감정과 상호작용을 위한 느낌이 전제된다고 할 때 담화표시어의 습득과 이의 올바른 사용은 그 당위성을 갖는다.

앞으로의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위해 담화표시어의 쓰임과 기능에 대한 연구인 Schiffrin(1987)의 모델을 살펴보자. 이에 대한 검토는 언어교육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사뭇 크다 하겠다. 즉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은 언어 자체의 이해 근본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담화표시어 분석을 위한 Schiffrin의 모델은 5개의 서로 다른 담화구조(five planes of discourse: Information state, Participation framework, Ideational structure, Action structure, Exchange structure)

를 설명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담화의 일관성은 다양한 상호작용적 구조를 통해 발전되어 나가는데 이러한 담화의 전이과정에서 담화표시어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Schiffrin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담화표시어 분석에 유용하다 하겠다.

1) 화행(speech acts), 텍스트 응집성(text cohesion) 그리고 말 순서 취하(turn taking) 등 담화의 구성요소로 여겨지는 다 층위 (multi-layered discourse)를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담화표시어에 대한 일관된 설명(uniform account)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 이는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주어진 담화표시어는 서로 다른 기능(plurifunctionality)을 수행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3) 주 기능과 부차적 기능을 구별함으로써, 담화표시어의 주 기능(primary function)과 부차적 기능(secondary function)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하나의 담화표시어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uniform analysis)을 제공해 줄 수 있다.

Schiffrin은 또한 지시적 기능(indexical function)을 설정함으로써 담화에서 두 개의 중심 축인 참가자(participants) 혹은 텍스트(text)와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담화표시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담화표시어가 생성되는 담화가 앞뒤관계에 따라 어느 참가자들(speaker or hearer)과 긴밀히 연결(participant coordinates)되고, 혹은 어떤 문맥(prior or upcoming)과 긴밀히 연결(textual coordinates)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쓰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chiffri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although a marker may be theoretically able to select any number of implicature and potential relationships, in actuality, that relationship is already fairly constrained, such that the marker acts more to display the relationship (than to create it).

- 3) Schiffrin의 모델은 담화표시어 분석을 위해 이전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접근의 종합으로 여겨진다. 이는 Halliday & Hasan(1976)의 텍스트상의 응집성(text cohesion)을 중심으로 한 연구, Sack, Schegloff, and Jefferson(1978)의 말 순서 취하기(turn taking)를 중심으로 한 분석, 그리고 Owen(1981)의 담화단위(conversational unit)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대략적인 설명을 덧붙인다면, ideational structure는 명제적 의미와 관련되고, exchange structure는 말 순서(turn taking)의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앞으로 연구가 행해질 수 있는 연구의 방향성은 크게 텍스트 중심적인 접근과 담화 중심적인 접근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실제로 사용되는 교재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가 그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후자는 실질적인 대화(face-to-face conversation)를 바탕으로 하는 담화가 그 분석의 대상이 된다. 특히 후자는 비원어민 사이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런 담화가 그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담화표시어의 언어교육적 의의와 제안

지금까지 대부분의 담화표시어 연구의 초점은 한 특정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어 담화표시어에 대한 탐색인데, 역사적인 측면과 아울러 수집된 막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고는 비원어민, 특히 학습자들의 사용하는 담화표시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하다는 게 그 출발점이 되었다. 비원어민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담화표시어는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최근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상호작용과 문법(interaction and grammar)”분야에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EFL 환경에서 쓰이는 담화표시어의 텍스트 상에서의 기능(textual function)과 상호작용적인 기능(interactional function), 더 나아가 참여자들 간의 역할 설정 기능(interpersonal function)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영어학습이라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영어교육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첫째로 담화 표시어가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과 담화상의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선 학습에 쓰이는 교재 제작과 관련되어 그 기여점을 설명할 수 있겠다. 풍부한 실자료(authentic materials)에 빈번히 나타나는 담화표시어의 사용은 상황에 맞는 언어표현을 활용한 보다 역동적인 교재개발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 즉,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의 역할, 그들이 나누는 정보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적 기능에 강조점을 둔 교재 개발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재는 또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신장을 도와줄 수 있다. 즉, 학습자가 아직 목표어를 자동적으로

요소인 교수방식과 관련된 기대 효과이다. 역동적이고, 상호 활동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담화표시어를 중심으로 어떻게 가르칠까하는 교수방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자의 인지적 이해도를 담화 표시어의 사용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단계에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미리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준비를 통해 학습과정에 강조되고 주의해야할 것들에 대한 선택의 준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는 전략적으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을 능동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braham, Werner. 1991. "The Grammaticization of the German Modal Particles." In: Elizabeth Traugott and Bernd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ization II*: 331-380.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Brinto, Laurel. 198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New York: Mouton de Gruyter.
- Celce-Murcia, M. & Olshtain, E. 2001. *Discourse and Contex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erch, C. & Kasper, G. 1984. "Pragmatic knowledge: Rules and procedures." *Applied Linguistics*, 5: 214-225.
- Duranti, A. & Goodwin, C. 1992. "Rethinking context: an Introduction." In: Duranti, A & C. Goodwin (eds.), *Rethinking Context. Language as an Interactive Phenomenon*, 1-4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iday, M.A.K and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Pearson Professional Edu.
- Maschler, Yael. 2000. "Toward fused lects: Discourse Markers in Hebrew-English Bilingual Conversation Twelve Years lat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4/4: 529 - 561.
- Matras, Yaron. 2000. "Fusion and the Cognitive Basis for Bilingual Discourse Make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4/4: 505-528.
- McCarthy, M. & Carter, R. 1994. *Language as Discourse: Perspectives for Language Teaching*. New York: Longman.
- Schiffrin, Deborah.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ffrin, Deborah. 1994. *Approaches to Discourse*. Oxford: Blackwell.
- Widdowson, Henry. 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ardley, Gabriel. 2000. "Talking about the Art in the writing Clas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English by Native and Korean Speaker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Yang, Changyong. 2004. "Some Thoughts on Discourse Markers." *The Journal of Jeju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10: 93-101

양창용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자우편: chejuycy@cheju.ac.kr

접수일자: 2004년 9월 8일

게재결정: 2004년 9월 17일